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7장 "이르되"와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7장, 텍스트판 174-213쪽. 원래 논문은 "'It Says,' 'Scripture Says,' 'God Says'"로,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8호(1899)에 실렸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신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인용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구절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구절이다. 이 둘을 보면 신약 저자들이 성경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주어 없이 “이르되”로만 인용하는 구절을 두고 문법학자와 주석가들의 견해를 정리한다. 그중 이 동사를 “누가 그러더라”는 막연한 비인칭으로 보자는 애보트의 견해를 집중해서 반박한다. 다음으로 바울과 히브리서의 인용 방식이 서로 다른 성경관을 보여 준다는 웨스트코트의 주장도 바로잡는다. 마지막으로 헬라어 일반 용례와 1세기 유대인 학자 필로의 용례를 살펴 결론을 내린다. 신약의 “이르되”는 곧 “성경이 이르되”이고, 이는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두 종류의 구절 — 성경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경처럼

워필드는 신약 저자들이 성경을 깊이 경외한다는 점은 새로 증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 증거 가운데 특히 두 종류의 구절에 주목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한 것처럼 쓰는 구절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한 것도, 바로에게 선언한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는 성경이 아직

때문이다. 둘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문장, 곧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말이나 하나님에 관해 한 말, 해설자의 말을 “하나님이(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인용하는 구절이다. 두 종류를 합쳐 보면 결론이 나온다. 권위가 얼마나 직접적인가 하는 면에서, 신약 저자들은 성경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구분을 두지 않았다.

1. 성경이 하나님처럼 '미리 알고 말한다'
2.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된다
3. 둘 다 성경=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습관에서 나옴
4. 권위의 직접성에서 둘 사이 구분이 없다

> **갈라디아서 3:8**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창세기 12:3)을 '성경이' 전했다고 씀
>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로마서 9:17**
>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출애굽기 9:16)을 '성경이' 말했다고 씀
>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 **마태복음 19:4-5**
> 창세기 2:24의 해설자 문장을 예수께서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고 인용
>
>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 **히브리서 3:7**
> 시편 95:7의 권면을 '성령이 이르신' 말씀으로 인용
>
>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거든

사도행전 4:24-25

다윗의 시(시편 2:1)를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13:34-35

이사야 55:3과 시편 16:10을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으로 인용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6-10

신명기 32:43, 시편 104:4, 시편 45:6-7, 시편 102:25 같은 하나님께 드린 말,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 2. 주어 없는 "이르되" — 문법학자와 주석가들의 의견

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문법학자 버트만은 주어가 '하나님' 또는 '성경'이라고 본다. 젤프는 '선지자', '성경', '성령'을 보충하자고 한다. 와이너와 블래스는 신약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결코 비인칭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대개 '하나님'이 주어로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샌데이·헤드람, 마이어, 알퍼드, 엘리코트, 블레크, 마요르 등 대부분의 주석가도 '하나님'을 주어로 본다. 일부는 '성경'을 주어로 보는데, 워필드는 이 경우도 신약 저자들이 인용문을 신적 권위로 다뤘다고 보는 점에서는 같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델리취, 컨, 바이쉴락, 고데처럼 이 동사를 비인칭, 곧 '(어딘가에) 그렇게 쓰여 있다' 정도로 보려는 흐름도 있었다. 이들이 근거로 드는 지혜서 15:12(외경)와 고린도후서 10:10은 사본상 복수형 “그들이 말한다”(φασίν, 파신)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두 구절 모두 성경이나 문서를 인용하는 자리도 아니다.

1. 주어 없이 λέγει·φησίν으로 인용하는 구절들
2. 다수 주석가: 주어는 '하나님'
3. 일부: '성경' — 그래도 신적 권위는 동일
4. 소수: 비인칭 '그렇다더라'로 봄
5. 비인칭의 근거 구절은 사본상 의심스럽다

> **로마서 9:15**
> 출애굽기 33:19를 주어 없이 '이르시되'로 인용(본래 하나님이 화자)
>
>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 **로마서 15:10-11**
> 신명기 32:43과 시편 117:1을 '또 이르되'로 이어서 인용
>
> 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 **갈라디아서 3:16**
> 창세기 13:15의 '자손'을 '말씀하시지 않고'로 다룸. 주어는 문맥상 하나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6:16

창세기 2:24를 주어 없는 φησίν으로 인용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5:27

시편 8:6을 주어 없는 '말씀하실 때에'로 인용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고린도후서 6:2

이사야 49:8을 '이르시되'로 인용. 문맥상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8:5

출애굽기 25:40을 φησίν으로 인용.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주어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6

잠언 3:34를 '일렀으되'로 인용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0:10

>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 3. 애보트의 극단적 견해와 그 뿌리

워필드는 『국제비평주석』의 에베소서 주석을 쓴 애보트를 길게 다룬다. 애보트가 이 견해를 유난히 독단적이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애보트의 주장은 이렇다. 에베소서 4:8의 “그러므로 이르기를”은 영어의 “it says”처럼 막연한 표현이다. 바울은 구약의 본래 문맥에서 하나님이 화자인 경우에만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그 밖에는 '성경이', '다윗이', '이사야가'라고 쓴다. 따라서 이 표현을 “축자 영감의 극단적 견해”에 맞추어 해석하도록 바울에게 강요할 수 없다. 에베소서 5:14는 아예 예배 찬송에서 따온 말일 수 있다. 라이트풋, 하인리치, 그리고 하인리치가 손본 마이어 주석 후기판은 언어학적으로 이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했다. 그러나 워필드는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애보트는 서로 같은 편인 '하나님' 보충설과 '성경' 보충설을 혼동하면서 이 둘을 비인칭설과 뒤섞는다. 둘째, 애보트의 해석은 본문 주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축자 영감이 싫다는 교리적 선입견에서 나왔다. 워필드는 이렇게 되묻는다. 우리가 싫어하는 영감론에 맞는 표현을 바울에게 금지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사도가 표현을 자유롭게 고르게 두고, 그 표현에서 그의 영감관을 읽어 내는 것이 주석가가 할 일이다. 셋째, 애보트는 상대편에게는 좁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기 주장에는 헬라어에서 전례도 없는 용법을 끌어온다. 라이트풋조차 그 인용이 권위를 나타내려고 제시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워필드는 이 논쟁을 풀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세운다. 하나는 바울의 인용 방식이 그의 구약 평가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 없는 λέγει와 φησίν이 신약 안팎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이다.

1. 애보트: '이르되'는 막연한 '그렇다더라'
2. 바울은 원래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로 인용한다고 주장
3. 워필드: 영감론 혐오가 해석을 끌고 갔다
4. 사도의 표현에서 그의 영감관을 읽어야

에베소서 4:8

시편 68:18을 '그러므로 이르기를'로 인용. 애보트 논쟁의 중심

>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5:14

출처가 논란인 인용(워필드 표기: 이사야 60:1). 애보트는 찬송 인용으로 봄

>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19-20

애보트의 근거: 바울은 '모세가', '이사야가'처럼 다른 주어도 쓴다

>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로마서 9:17

애보트의 근거: 바울은 '성경이'를 주어로도 쓴다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 4. 바울에게 "성경이 이르되"는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워필드는 애보트가 내세운 본문들이 오히려 반대를 증언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9:15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 9:17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로 인용한다. 바울에게 두 표현은 바꿔 써도 되는 같은 말이었다. 게다가

모세의 이름, 이사야의 이름, 이름 없는 인용이 섞여 있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인 구절과 선지자의 말인 구절이 섞여 있다. 그래도 모두 같은 권위로 다뤄진다. 로마서 15:9-12에서는 네 인용을 “기록된 바”, “또 이르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로 각각 다르게 소개한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인용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하시되“(3:16)도 앞 문맥의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3:8), ”기록된 바"(3:10, 13), 성경 전체에 호소하는 3:22와 나란히 선다. 워필드는 퍼브스의 글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쓴 책 안에서도 말씀하신다(로마서 1:1-2). 바울은 저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경', 곧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선언한다(디모데후서 3:16). 그러므로 설령 바울이 하나님이 화자가 아닌 구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소개한 예가 하나도 없다 해도, 그것은 신학 원칙이 아니라 우연이다. '원래 하나님이 화자인 구절'과 '그렇지 않은 구절'을 나누는 생각 자체가 바울에게는 낯설다.

1. 로마서 9:15와 9:17에서 두 표현이 동의어로 쓰인다
2. 현재형 인용: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3. 인용 방식은 달라도 권위는 하나
4.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또 그 책 안에서 말씀
5. '하나님이 화자인 구절'만 따로 나누는 생각은 바울에게 낯섦

> **로마서 9:15**
>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출애굽기 33:19)을 현재형으로 인용
>
>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 **로마서 9:17**
>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이르시되'로 인용. 두 표현이 동의어
>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9-12

시편 18:49, 신명기 32:43, 시편 117:1, 이사야 11:10을 서로 다른 문구로 인용. 방식보다 '성경'이라는 사실이 중요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8-22

창세기 12:3, 신명기 27:26, 하박국 2:4, 레위기 18:5, 창세기 22:18을 모두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로마서 1:1-2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책 안에서 말씀하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베드로후서 1:21

퍼브스가 인용: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저자의 영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16

저자가 아니라 '모든 성경', 곧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15:4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성경은 지금도 말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11

옛 일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되었다. 같은 취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로마서 4:23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9:10

율법 조문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자체이다."

📜 5. 히브리서와 바울은 다른 성경관을 가졌나 — 웨스트코트에 대한 답

웨스트코트는 『히브리서 주석』 부록에서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 방식을 자세히 정리했다. 히브리서는 저자 이름 없이 인용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시하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인용한다. 워필드는 이 묘사가 정확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웨스트코트가 이를 "다른 신약에는 진정한 유사점이 없다"는 결론으로 끌고 간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바울과 히브리서는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타 로기아 투 테우)이라고 부른다(로마서 3:2, 히브리서 5:12). 다만 인용 습관이 다르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점을, 바울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웨스트코트는 반대 사례(사도행전 13:35, 고린도전서 6:16 등)는 지나치고 히브리서는 좁게 읽었다. 히브리서에도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2:6)나 "다윗의 글에"(4:7)처럼 사람 저자와 기록을 의식한 인용이 있다. 3:15, 4:4-5, 8:5, 8:8, 8:13처럼 주어가 하나님인지 성경인지 모호한 곳도 있다. 워필드는 두 책의 용례를 네 가지씩 분류해 나란히 놓는데, 경계는 흐려지고 서로 섞인다. 사도 시대 직후의 클레멘트서와 바나바서는 두 방식을 한 편지 안에서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보완한다. 성경을 '신탁'으로 의식하면 “이르시되”가 나오고, '기록된 권위'로 의식하면 “기록된 바”가 나온다. 이 차이는 독자와도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 유대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으로 인용하는 데 익숙했고, 로마 같은 이방 사회는 공문서를 “기록된 바”로 인용하는 법적 관행에 익숙했다. 다만 워필드는 이 가설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로 인용한 사실(로마서 9:17)은 그가 기록과 음성을 동일시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1. 웨스트코트: 히브리서만 성경=하나님 음성
2. 워필드: 표면 습관 차이일 뿐 성경관은 같다
3. 둘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로기아)'이라 부름
4. 클레멘트·바나바·필로는 두 방식을 섞어 씀
5. 신탁 의식은 '이르되', 기록 의식은 '기록된 바'

> **로마서 3:2**
> 바울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로기아)'이라 부른다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히브리서 5:12**
> 히브리서도 같은 이름을 쓴다. 성경관이 같다는 근거
>
>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 **히브리서 2:6**
>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히브리서도 사람 저자를 의식한다
>
>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히브리서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마가복음 12:26

'모세의 책 중에'. 히브리서 4:7을 '다윗의 글'로 읽는 비교 근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로마서 9:25

'호세아의 글에도'. 같은 비교 근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서 1:10

하나님께 드린 말인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웨스트코트 설명의 반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8:8

주어 없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인지 성경인지 모호한 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갈라디아서 4:30

바울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록 의식이 강한 인용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 6. 헬라어에서 주어 없는 φησί·λέγει는 정말 "누가 그러더라"인가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젤프와 쿤네르 같은 문법학자에 따르면 헬라어에는 영어의 “it rains” 같은 진짜 비인칭 동사가 거의 없다. 주어는 술어나 문맥이나 독자의 지식에서 쉽게 알 수 있을 때 생략될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헬라어 문헌에서 λέγει가 “사람들이 그러더라”(프랑스어 on dit, 독일어 man sagt)라는 막연한 뜻으로 쓰인 예는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누군가'(τις), 복수형 '그들이 말한다'(λέγουσι, φασί), 수동형 '말해진다'(λέγεται)로 표현했다. φησί는 비인칭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베른하디의 설명은 사실 단수형이 복수 대신 쓰이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사전에 실린 예들도 들여다보면 다르다. 데모스테네스의 예에서는 비문, 법, 입법자가 주어다. 플루타르코스의 예에서는 대화 상대나 저자와 독자가 모두 아는 시인이 주어다. 크세노폰의 ἔφη는 클레아르코스가 주어다. 에픽테토스의 『담화록』에서는 기록자 아리아노스가 끼워 넣은 '(스승이) 말하길'이거나 생생한 가상 대화의 화자가 주어다. 가장 비인칭에 가까워 보이는 예조차 막연한 “it is said”와는 본질이 다르다. 신약의 φησίν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화자를 가리킨다. φησί의 기능은 막연한 출처 표시가 아니다. 독자가 화자를 계속 의식하게 하고,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표시하며, 반론이나 문헌 인용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1. 헬라어엔 진짜 비인칭 동사가 거의 없다
2. λέγει가 '누가 그러더라'로 쓰인 예는 없음
3. φησί의 '비인칭' 예도 주어가 문맥에 있다
4. φησί는 화자를 의식시키는 장치
5. 막연한 출처 표시에는 맞지 않는 단어

> **마태복음 14: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누가복음 7:40

시몬이 '이르되'. 같은 용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사도행전 25:5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으로 넘어갈 때 끼워 넣은 φησίν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사도행전 26:25

바울이 '이르되'. 화자를 생생하게 붙드는 기능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 7. 필로의 용례와 결론 — "그것이 이르되"는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

신약의 짝을 찾으려면 필로를 보아야 한다. 필로는 1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로, 성경을 신탁의 책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록되었다'보다 주로 '말하다' 계열 동사(φησί, λέγει, λέγεται, εἶπεν)로 성경을 인용했다. 그의 인용에서 주어는 이야기 속 화자, 모세, 선지자, 율법을 주신 분, 거룩한 말씀, 하나님 등으로 다양하고, 주어가 아예 없을 때도 많다. 필로 연구자 라일은 필로가 사사기를 주어 없는 φησίν으로 인용한 것을 두고 고민했다. 영(Yonge)의 영어 번역은 근거 없이 여러 곳에 “모세가 말하길”을 덧붙였다. 워필드는 이런 기계적 보충이 필로의 기본 원칙을 놓친 것이라고 본다. 필로에게 “모세가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죽음을 앞둔 월터 스콧 경에게 '책'은 오직 한 권이었다는 일화가 알려져 있다. 영어 구어에서 성경을 그냥 “It says”라고 인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그때의 “It”은 오직 하나뿐인 그 책을 가리키는, 경외가 담긴 말이다. 신약의 “기록되었으되”가 '어딘가에 적혀 있다'가 아니라 '권위 있는 법이다'라는 뜻이듯, “그것이 이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5의 φησίν을 필로식으로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6:16이나 사도행전 13:35, 로마서 9:15, 로마서 15:10, 고린도후서 6:2, 갈라디아서 3:16, 에베소서 4:8, 에베소서 5:14를 다르게 읽을 이유가 없다. 다만 문맥에 주어가 있는데도 억지로 무주어 용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 반대로 문맥에서 주어를 억지로 짜낼 필요도 없다. 에베소서 5:14의 출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미루어 둔다. 그래도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는 문구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 했다는 신호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읽든 '성경'으로 읽든, 신약 저자들에게 그 의미는 하나다.

1. 필로: 모세·성경·하나님이 말함은 같은 뜻
2. 주어 없음은 대상이 너무 분명하다는 뜻
3. 기계적으로 '모세가'를 보충하면 오역
4. 구어 “It says”의 It은 경외의 It
5. 신약의 '이르되' = 성경이 = 하나님이

> **히브리서 8:5**
>
> 필로식으로 읽으면 φησίν은 '하나님이 이르심'
>
>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전서 6:16**
>
> 같은 방식으로 읽지 못할 이유가 없다
>
>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5:14

출처 논란은 미루지만 '그러므로 이르기를'은 하나님 말씀 인용 의도를 보여 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장의 출발점으로 돌아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3:34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로마서 9:17과 짝을 이룸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행간의 의미에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제 주어는 하나님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축자 영감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 이 장에서는 애보트가 '극단적'이라고 붙인 꼬리표로 나온다.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디모데후서 3:16에서 '모든 성경'을 꾸미는 말이다.

ἡ γραφή(헤 그라페)
'성경', 곧 '그 기록'. 신약에서 구약 전체나 한 구절을 가리킨다.

λέγει(레게이) / φησίν(페신)
둘 다 '(그가/그것이) 말한다'. 주어 없이 인용을 소개할 때 쓰인다.

γέγραπται(게그랍타이)
'기록되어 있다'. 단순히 '어딘가 적혀 있다'가 아니라 '권위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무게가 실린 인용 문구다.

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타 로기아 투 테우)
'하나님의 말씀들', 곧 신탁.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모음으로 보는 이름이다(로마서 3:2).

인용 공식
“기록된 바”, “성경이 이르되”처럼 인용문 앞에 붙이는 정해진 문구.

비인칭 동사
영어 “it rains”처럼 특정 주어 없이 쓰이는 동사. 헬라어에는 이런 동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장의 논점이다.

70인역
기원전에 만들어진 구약의 헬라어 번역. 신약 저자들이 자주 인용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이 장의 결론

- 신약 저자들은 “성경이 이르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같은 뜻으로 바꿔 썼다.
- 주어 없는 “이르되”는 막연한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다. 대상이 너무 분명해서 생략한 것이다.
- 바울과 히브리서의 인용 방식 차이는 습관의 차이일 뿐, 성경관은 같다.
- 헬라어 용례와 필로의 용례도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실제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